

금호석유화학, KCL과 건자재 상호협력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송재빈)과 <건자재산업 기술발전을 위한 시험·평가·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15일 발표했다.



앞으로 건자재 산업분야 시험·평가기술 교류, 연구과제 공동 발굴·수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협력분야 자료 상호교환, 연구시설 공동활용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친환경성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건자재 산업분야에서 안정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건자재사업부장 허권욱 상무는 “협약 체결을 통해 건자재 산업분야의 기술 향

상과 공동연구 진행 등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ABS창호 등 휴그린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건축자재, 의료기기, 생활용품, 바이오 등 관련분야에서 시험평가 인증과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5>